

세계적 푸르른 양진디와 함께...

HAMPYEONG DYNASTY COUNTRY CLUB

주중 비회원 예약 및 5인 PLAY 가능  
전남 함평군 학교면 곡창리 산6-21  
TEL.(061)320-7800 예약문의 (061)320-7700,7777



해외에서 40여 일 이상 구슬땀을 흘리며 정규 시즌을 준비해 온 프로야구 KIA 등 8개 구단이 스프링 캠프를 마치고 귀국해 17일부터 열릴 시범 경기를 본격적으로 준비한다.

일본 시코쿠 고치 및 오키나와에서 훈련한 SK 와이번스와 미국 하와이에서만 전지 훈련을 치른 한화 이글스가 8일 귀국한다.

이어 일본 미야자키에서 함께 겨울을 난 KIA와 두산이 9일 사이 좋게 돌아오고, 현대 유니콘스, 롯데 자이언츠, LG 트윈스가 10일 한꺼번에 들어온다.

랍과 오키나와에서 알찬 시간을 보낸 지난해 한국시리즈 챔피언 삼성 라이온즈는 가장 늦은 11일 귀국한다.

한화를 제외한 7팀은 일본에서 캠프를 치렀고 일본 프로팀은 물론 한국팀끼리 연습 경기를 통해 탐색전을 마쳤다.

삼성, LG, SK는 '오키나와 리그'를, KIA와 두산은 '미야자키 리그'를, 현대, 롯데는 '가고시마 리그'를 벌였다.

KIA는 9일 복귀 후 광주에서 12~13일 현대와 16일은 SK와 연습경기를 벌이며

# KIA “이젠 실전이다”

프로야구 8개구단 전훈 끝...17일부터 시범경기

실전 감각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나머지 팀도 홈구장에서 1주일 간 캠프 마무리 훈련을 통해 시즌을 준비한다.

이어 17일부터 4월 1일까지 16일간 팀당 14게임씩 시범 경기를 치러 문제점을 고치고 주전 멤버도 확정할 방침이다.

올 시즌 우승을 노리며 캠프에서 시즌을 준비해 온 각 구단 감독들은 캠프에서 체력 훈련과 전술 훈련을 병행하며 조직력을 다

졌다.

또 저마다 지난 아킬레스 건을 최소화 하기 위한 대비책 마련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KIA는 용병타자 서튼과 홍세완의 합류에 이어 이종범, 이재주 등의 타격감이 살아나며 타선의 무게가 묵직해졌고, 마운드도 김진우를 비롯한 에서트, 전병두, 윤석민, 이상화 등이 컨디션 점검을 마쳤다. 마

무리는 든든한 한기주가 버티고 있다.

또 '지옥 훈련'의 대명사 김성근 감독을 영입한 SK는 케니 레이번, 마이크 로마노 등 두 든든한 외국인 투수에 '제2의 괴물 신인' 김광현의 가세로 마운드 높이가 한층 높아졌다.

또 이호준이 돌아와 타선의 무게도 묵직해져 공수에서 전력이 급상승한 팀으로 꼽힌다.

'여우' 김재박 감독을 새 사령탑으로 앉힌 LG도 박명환, 팀 하리칼라, 봉준근 등 선발 투수진이 새로운 얼굴로 채워지면서 일약 '일을 저지를 팀'으로 탈바꿈했다.

주포 심정수가 정상을 회복한 삼성은 양준혁-김한수 등 베테랑 중심 타선이 답답했던 득점력을 해갈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신인왕과 최우수선수, 골든글러브를 모조리 싹쓸이 한 류현진과 철벽 마무리 구대성이 견재한 한화도 베일을 벗고 투타에서 지난해 보다 업그레이드 된 전력을 선보일 전망이다.

눈에 띄는 강팀도, 약팀도 없어 사상 최대 난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각 구단의 귀국으로 프로야구 개막 분위기도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추 추 흥런포는 언제 쏘나

시범경기서 아직 흥런포식 없어

확 달라진 타선으로 5년 만에 정상에 도전하는 일본 프로야구 요미우리 자이언츠가 시범 경기 초반 타선 침체로 고전 중이다.

일본 언론은 7일 요미우리가 전날 히로시마전에서 0-1로 져 시범 경기 전체 순위 최하위로 추락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팀타율은 0.205로 역시 12개 구단 중 꼴짜다.

1일 삿포로에서 지난해 일본시리즈 우승팀 니혼햄 파이티스전을 시작으로 시범경기에 몰입한 요미우리는 5경기에서 1승 4패를 올렸다. 총득점은 9점으로 경기당 2점이 채 안된다.

투수들의 컨디션이 최고조에 올라오고 타자들은 이제 감을 찾아가는 현 시점에서 시범 경기 팀 순위와 투타 성적은 큰 의미가 없지만 지난해 공격력 저하로 고민이 많았던 하라 다쓰로 요미우리 감독의 우려는 심각한 수준이다.

3일 팀의 두 번째 경기였던 소프트뱅크전부터 출장한 이승엽은 타율 0.300으로 일정 기량을 유지 중이다. 그러나 트레이드 마크인 홈런이 없다.

이승엽은 미야자키 스프링캠프에서 벌어진 청백전에서 불과 3경기 출장에 그쳤고 투수들이 실전에서 던지는 공을 4개월 만에 보는 터라 현재 타격감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홈런은 아직 생각할 겨를이 없다.

요미우리에서는 아베 신노스케와 가토 겐 등 두 명의 포수만이 홈런 한 방씩을 터뜨렸다. 3번 타자로 나선 지난해 퍼시픽리그 홈런, 타점 2관왕 오가사와라 미치히로와 슬러거 다카하시 요시노부, 미국프로야구 출신 용병 루이스 곤살레스 등 중심 타선은 아직 대포를 가동하지 못했다.

게다가 오가사와라와 아베는 컨디션 점검차 도쿄에서 개인 훈련 중이고 고타자 니오카 도모히로는 근육통 부상에서 17일께나 복귀할 것으로 보여 요미우리의 화려한 타선이 제대로 구색을 갖추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요미우리는 7~8일을 쉬 뒤 9일 오사카 교세라 돔에서 오릭스 버펄로스와의 개막전을 치른다. 이어 센트럴리그 라이벌 한신 타이거스와 고시엔구장과 기후구장에서 3연전을 치른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첼시의 우크라이나 출신 스트라이커 안드리 셉첸코(왼쪽)가 7일 런던에서 열린 FC포르투(포르투갈)와의 2006~2007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16강전에서 FC포르투의 리카르도 코스타를 제치고 골을 넣어주고 있다. /연합뉴스

## 리버풀 8강 진출

첼시·AS로마·발렌시아도 합류



챔피언의 대결에서 리버풀(잉글랜드)이 웃었다.

리버풀은 7일 오전(이하 한국 시간) 영국 리버풀 앤필드 경기장에서 열린 '별들의 전쟁' 2006~2007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 홈 경기에서 FC바르셀로나(스페인)에 0-1로 져 지난 달 22일 1차전 원정경기 2-1 역전승을 더해 득실 합계 2-2가 됐다.

2004~2005 시즌 우승팀 리버풀은 그러나 원정 다득점 우선 규정에 따라 2005~2006 시즌 챔피언 바르셀로나를 따돌리고 8강에 올랐다.

바르셀로나는 이날 후반 30분 선제골을 터뜨렸지만 그걸로 끝이었다. 바르셀로나는 남은 15분에 한 골을 더 넣어야만 8강에 오를 수 있었지만 리버풀은 육탄 방어로 배수진을 쳐 과다 공세를 막아냈다.

첼시(잉글랜드)는 런던에서 열린 FC포르투(포르투갈)와 홈 경기에서 미하엘 발라크의 결승골로 2-1 역전승을 거두고 8강에 합류했다.

1차전에서 1-1로 비긴 첼시는 전반 히카르두 카레스마에게 선제골을 내줬지만 아르연 로빈이 중거리슛으로 동점골을 뽑고 후반 34분 발라크가 발리슛으로 승부를 결정했다.

AS로마(이탈리아)는 프란체스코 토티, 알레산드로 만시니의 연속골로 프랑스 리그 챔피언 올랭피크 리옹을 2-0으로 완파하고 8강에 올랐다.

발렌시아(스페인)는 홈 경기에서 이탈리아 세리에 A의 독보적인 선두 인터밀란과 득점없이 비겼지만 지난 달 원정경기에서 2-2로 비긴 덕분에 8강 티켓을 손에 넣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작년 A매치 횟수

### 한국축구 '세계 2위'

FIFA매거진 보도 "총 22회"

한국이 지난해 국제축구연맹(FIFA) 가맹국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A매치를 치른 것으로 나타났다.

FIFA가 발간하는 월간지 'FIFA매거진' 3월호에 따르면 축구대표팀은 지난해 모두 스물 두 차례 A매치를 펼쳐 사우디아라비아(24회)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했다.

월 평균 1.83회의 경기를 치른 셈이다. 일본이 19회로 3위를 기록했으며 독일(18회), 앙골라, 코트디부아르, 프랑스, 가나, 요르단(이상 17회), 이탈리아, 리비아, 폴란드, 튀니지(이상 16회)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지난해 186개국 804경기를 치러 팀당 평균 8.6경기를 소화한 것과 비교할 때 한국은 평균보다 2.6배 이상 많은 경기를 소화했다.

한국의 A매치 횟수가 늘어난 것은 2006 독일월드컵 준비를 위해 연초부터 40여일 동안 해외전지 훈련에 나서면서 많은 평가전을 치렀고, 2007 아시안컵 예선 일정도 겹쳤기 때문이라는 게 축구협회의 설명이다.

딕 아드보카트 감독이 이끌던 대표팀은 지난해 1월 중동 4개국 친선대회를 시작으로 홍콩 칼스버그컵을, 미국 전지훈련에 이어 3월부터 월드컵 직전까지 두 달여 걸쳐 다섯 차례 친선경기를 소화했다.

여자축구에서는 중국이 29회 A매치를 벌여 '강철체력'을 과시했고 미국(22회), 일본(17회), 캐나다, 멕시코(이상 16회) 등이 '톱 5'를 차지했다. 한국은 지난해 일한 차례 A매치를 가졌다.